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CalState LA 에서 보낸 8 개월은 제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의 체험 후기가 교환학생 파견을 원하는 많은 학우들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비자 발급 및 사전 준비

출국 전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CalState 의 경우 J-1 비자를 지원했는데, 해당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들도 복잡했지만 그 이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으므로 출국 전 몇 개월을 바쁘게 보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어 기숙사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도 준비해야 했고,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캠퍼스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상세히 얻을 수 있고, 외국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들은 담당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기간 내에 준비를 마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기숙사 및 캠퍼스

CalState LA 의 캠퍼스는 굉장히 넓고 약간 경사졌다는 면에서 충남대학교 캠퍼스와 비슷합니다. 정문에서 위쪽으로 쪽 걸어 올라가면 매점과 식당들이 있는 큰 건물(Golden Eagle 건물)과 도서관, 그리고 우리 학교로 치면 교양관과 비슷한 King Hall 이 있는데, 파견 기간 내내 이 세 건물을 가장 자주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 건물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면 찾길이 있고, 이를 건너면 아래로 이어지는 꽤 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기숙사와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잇는 유일한 길입니다. LA 에 도착한 첫 날 캐리어 두 개를 끌고 기숙사를 찾아가다가 이 계단을 밟다쓰리고 크게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계단을 내려가면 여러 개의 건물들로 이루어진 기숙사 구역입니다.

이 학교의 기숙사는 제가 사용했던 2인 1실 뿐만 아니라 1인 1실, 3인 1실, 4인 1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숙사 구역 내에 농구 코트, 학생 지원 센터,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메일 룸 그리고 기숙사 식당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에 제가 이용해본 적은 없지만,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기숙사 식당 이용 신청을 고려해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3. 수업

한국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기 시작 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티켓팅하듯 정각이 되자마자 클릭하는 등의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강신청을 빨리 하지 않았다가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지 못하고 대기자 목록에 이름을 올린 뒤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제 전공인 철학 수업을 학기당 2~3 과목 듣고, 나머지는 재미있어 보이는 수업으로 2~3 과목정도 찾아 들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거나 색다른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면 연기 수업(Acting I, Acting II)과 교양 체육 수업을 추천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철학과 학우, 혹은 인문계열 전공 학우가 교환학생 파견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읽기 능력을 키워 가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철학 전공 수업은 토론 수업이나 작문 과제도 굉장히 많지만 주어진 기사 혹은 책의 일부분을 다음 수업 시간까지 읽어가는 Reading Assignment 가 매우 많기 때문이며, 다른 인문 계열 전공 수업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AMA, MLA 등 미국의 작문 과제 양식에 대해 알고 가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식 사용을 일절 요구하지 않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특정 양식을 사용해 과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교수님들 또한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책을 사 가야 하는 수업은 하나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살 일은 없었지만, 교과서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내 서점에서 구매 혹은 대여하거나 Amazon 등을 이용해 주문하거나, 전자책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 했습니다.

4. 식사

캠퍼스 내에 스타벅스, Carl's Jr., Sbarro, El Pollo Loco 등 많은 체인 음식점이 입점해 있으며, 이런 음식점들이 있는 푸드코트 내에 초밥, 샐러드 등을 파는 가게들도 있어 메뉴 선택의 폭은 넓은 편입니다. 도서관 1 층에도 카페와 함께 Everytable 이라는 도시락 가게가 있는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영양, 맛 전부 뛰어나 저는 스타벅스 다음으로 이 가게를 가장 자주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캠퍼스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장 봐 온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편의점은 기숙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한 군데 있지만 대형 마트는 버스나 우버를 타고 가야 했는데, Alhambra 동네에 Target, ALDI, Albertsons 등의 마트가 있고, 저는 그 중 가장 저렴한 ALDI 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캠퍼스 내의 Golden Eagle 건물에서 Food Pantry 를 진행합니다. 이는 파스타, 쌀, 통조림 등 식재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인데, 교환학생 여부, 기숙사 거주 여부 등과는 상관 없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인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식재료나 식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깊이 고려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5. 마치며

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 만난 많은 친구들이 제게 왜 수많은 미국 도시들 중에 LA 를 선택했는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 보면 그 선택에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LA 는 수많은 음악가들을 낳은, 할리우드가 있는 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고, 저는 그 분위기를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후의 저는 보다 구체적인 것들로 LA 를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야자수, 주말마다 찾았던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 낸 다채로운 문화 등이 그렇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며 공부한다는 것 자체로도 특별한 기억이 될 수 있으나,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체험한다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체류 기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것을 경험하려 노력한다면 분명 더없이 소중한 추억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